

고려관에서의 대화

(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 내외가 살던
심양의 고려관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)

소현: 빈궁,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?

강빈: 그러게 말입니다, 저하. 이제 좀 중계무역으로 생계를 걱정하지 않은가 했더니 식량을 대어 주지 않을뿐더러 황무지에서 농사까지 지으라니요.

소현: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까?

강빈: 저하, 실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중계무역으로 번 돈으로 조선에서 끌려와 노예로 사는 백성들을 속환하면 어떨까 합니다.

소현: 과연 몇 사람이나 속환할 수 있겠소?

강빈: 저하, 지금은 몇 명 못할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은 청나라 사람들보다 농사를 잘 지으니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나면 또 그 곡식을 팔아 더 많은 백성을 속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

소현: 그럴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구려. 우리 조선 백성들이 노예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편해진 다음에야 우리가 조선의 왕족이라 할 수 있을 것이요.

강빈: 그럼요. 우리 백성이 편해야 저하와 저도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이옵니다. 제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 농사를 잘 짓는 백성들에게 상을 내린다면 조금 더 열심히 농사를 지을 것이고, 그러면 수확을 많이 하게 되어 좀 더 많은 백성들을 속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북경으로 옮긴 후

소현: 빈궁, 오늘 남당에 가서 아담 샬 흠청감정을 만났소. 지나간 기록을 보여 주는데 일식과 월식을 예견한 것이 모두 맞습니다. 조선의 역학은 너무 뒤떨어져 있는 것 같구려.

강빈: 소첩은 그 천주교라는 것이 신기하였습니다. 조선의 성리학과는 많이 다른 데다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선 백성에게는 없는 자신감 같은 것이 보여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.

소현: 빈궁도 그랬구려. 나도 그랬소. 그래서 흠청감정에게 선교사를 조선에 데려가고 싶다고 하였더니 명나라 환관이었던 자와 궁녀였던 천주신자를 데려가라 하였소.

곤여만국전도도 있고, 천구의, 여지구, 기기도설도 있고, 아바마마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소?

강빈: 부디 그러셔야 하실 텐데요.